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 부산권 6개 대학 LINC+ 공유대학 플랫폼

1. 부산권 6개 대학 LINC+사업단 LINC+ 공유대학 플랫폼 제안배경

- 부산권 LINC+ 사업단의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라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공동사업 추진
- 각 대학 LINC+ 사업단에 흩어져 있는 산학협력 관련 기술과 교육콘텐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LINC+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
- 부산권 LINC+ 사업단의 연계·협업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LINC+ 산학협력 공유 대학 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기
- LINC+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권 6개 대학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과 상생을 해온 경험이 많으므로 부산형 공유대학의 실현(성공)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 (공유대학 추진 MOU 체결)

부산 지역대학들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학생수 감소, 등록금 동결 등 대학경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대학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 부산권 6개 대학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 기반 공유대학 플랫폼을 통한 지역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

2. 부산권 LINC+ 공유대학 플랫폼의 주요 추진내용

- K-MOOC 콘텐츠 공동 개발 (Start-up Challenge) (20.06) - 동남권 11개 대학
- LINC+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협약 (20.09) - LINC+사업단장



- 부산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I-Korea 4.0 교육 (20.10~11)
 - AI, 스마트시티 등 6개 분야 (강사 : 6개 대학 교수 6명)
 - 온라인 (<https://bit.ly/3hXE2uc>) /오프라인 교육 진행
- 부산광역시-부산권 LINC+사업단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협약식 (20.10)
 -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및 6개 대학 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참석)



- 공유대학 홈페이지(<https://www.susb.or.kr>) 구축·운영 - 완성 (2021년 1월)
- 6개 대학 공동 창업 교과목 개설 확정 (21-1학기)
 - 교과목 명 : AI기반 창업마케팅
 - 9주 온라인, 6주 오프라인 (부산시 유라시아 플랫폼 활용)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한국해양대는 △공유대학 플랫폼 공동 운영 △인력양성 공동교육과정 개발 △상호협력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 기획 개발 △상호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공유대학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협력할 계획

3. 본격적인 공유대학 플랫폼 도입에 따른 대학 내 반발 등 우려사항

- 공유대학 개념에 대한 역발상 필요 - 대학구조개혁이나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교육혁신 차원에서의 이해와 공감 필요
- 한 강좌를 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6개 참여대학의 교수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강좌를 운영, 디지털 기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이 목적
- LINC+ 공유대학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유도하고 산학협력 기반의 대학 간 산학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하여 공유성장형 고등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 상생

4. 부산권 LINC+ 공유대학 플랫폼의 기대효과

-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환경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과 대학 간 상생협력 강화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촉진)
- 부산시 유라시아 플랫폼을 활용한 창업교육 공동교육과정 운영 (21년 1학기)으로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
- 부산권 LINC+ 사업단 6개 대학과 부산광역시 간 공유대학(University System of Busan, USB) 모델 구축을 통해 향후 부산지역 전체 대학으로 확산
- 부산권 LINC+사업단 공유대학 플랫폼을 통해 산학협력 기반의 새로운 교육혁신을 유도하여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에 입학해 지역의 우수기업에 걸맞은 인재로 양성되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신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공유대학으로 발전 (AI융합학과 공동개설 등)

이번 부산형 공유대학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부산의 모든 대학들과 공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발전 선도, 창업도시부산의 청년창업을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부산형 공유대학(University System of Busan, USB)’은 교육부의 지역혁신플랫폼사업,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과 연계·협력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

===== 기타 =====

5. 공유대학 플랫폼과 같은 지방대학들의 연대 사업이 지방 대학 소멸 위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공유대학 플랫폼을 비롯한 지방 대학 간 협력 사업이 지방권 대학의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로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대학의 몰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 필요
- 부산권 LINC+ 공유대학 플랫폼은 지방대학의 위기에 따른 공동 대응과 대학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이해할 필요
- 궁극적으로는 지역대학과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및 산업체가 상생과 협력을 통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 대학에 입학하고 지역의 우수기업에 걸맞는 인재로 양성되고 취업하는 선순환구조가 갖추어져야 지역대학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
- 교육부는 최근 대학기본역량평가에 각 대학 간의 협업이나 자원공유에 대한 평가모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대학에서는 공유대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